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보건 문화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통신망 구축 사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과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 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도입, 현장 중심의 실천적 예방 활동, 첨단 안전장치 활용은 안전보건 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글 이정림 **사진** 김재이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SK TNS가 선도하는 안전보건 문화 혁신

SK TNS는 통신망 구축 사업을 근간으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ICT 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했다. 독보적인 통신서비스와 품질로 고객 신뢰를 얻어 건축, 토목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성장했다. 특히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주로 스피드 중계기 설치, 인빌딩·지하철 통신설비 공사 같은 통신망 시공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 통신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망 구축 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여러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가 필수다. SK TNS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ISO 45001 인증을 획득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주현 지사장은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규정과 시스템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노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몸에 익히고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인식해 예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TNS
수도권 중계기지사

든든한 사후관리로 전문 건강 관리 체계 마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의뢰했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환경 변경, 건강 상담,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고위험군 노동자 추가 집중관리 등의 체계적 사후 관리 조치를 시작한 것이다. 통신망 구축 관련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한정훈 공사부장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체계적인 노동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장의 안전보건 문화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전문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면담과 관리를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사 차원의 노력에 노동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 노동자 상당수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의뢰 결과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인 이근우 프로는 "몸무게 15kg 감량, 음주량과 흡연량 감소 등 눈에 띄는 건강 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혼자서는 건강을 챙기기 어려웠지만, 회사의 전문적인 관리 덕분에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라고 밝혔다. 한정훈 공사부장은 "처음에는 50인 이상 비즈파트너(Biz Partner) 한 곳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비즈파트너 세 곳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스스로 지키는 실천적 예방활동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수도권 전역에서 건물 내 통신망 설치 사업을 수행한다. 건설 현장부터 일반 상가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으로 소음성 난청이나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SK TNS 수도권중계지사는 세부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수도권 전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고유의 안전보건 관리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신 불가 지역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에게 뇌심혈관 질환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김희은 프로는 "건강관리 대상 작업자에게는 '건강 이상 알림 장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동료 작업자가 즉시 구조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상연락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알림 장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장치를 사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는 노동자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경보장치 드롭콜(Drop-Call)'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하강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다. 또한, '스피드 도너 안테나(Speed Donor Antenna)' 설치 시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케이블타이-홀더를 활용한 안전 설치법을 적용하는 등 작업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현장 모든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이근우 프로는 "현장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비 사용 작업이나 고소작업 같은 고위험 작업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K TNS 본사 안전보건팀에서 개발한 완생 전산 시스템을 지사와 비즈파트너 안전보건 관계자 모두가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Mini Interview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 안전보건 문화 SK TNS가 만들어가겠습니다"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
박주현
지사장

우리 SK TNS 수도권중계기지사는 가시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이지 않는 보건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심한 노동자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아, 정기적인 건강검진,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비즈파트너에 '자신의 안전과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회사나 안전관리 담당자가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나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늘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 자신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사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